

예비 청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 감성지능,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관계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이상직(Lee, Sang Jik)*·박재춘(Park, Jae Choon)**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individual creativity of the pre entrepreneur have meaningful positive effect (+)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And also entrepreneurship is positively mediating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realize importance of individual creativity through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 creativity have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and individual creativity have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It was also found that entrepreneurship played important roles as partial moderating variables between individual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intension. And high emotional intelligence group's entrepreneurship intension is higher than the group that did not. We found in our study that we need to expand the creativity's level, content and development of appropriate tools for measure.

Key words: Creativit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Emotional intelligence, Moderating effect

* 호서대학교 교수 (제1저자)

** 단국대학교 부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창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건전한 노동시장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유지하고,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가정신을 높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 힘입어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전후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과제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창업 교육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자금 지원 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행 청년창업 지원 정책방향은 견지하되 창업 준비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조기에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김용성, 2014).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올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할 것이며, 이러한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며,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실업률의 고공행진을 예상하고 있다. 또 청년실업의 근본해결 위해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진로지도,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대한상의,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의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과 기업가정신의 상호작용이 창업의지에 주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와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관련된 감성지능,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관련 분석은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은 물론 창업 관련 정책을 구상, 수립, 입안, 집행하는 정책담당자에게도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분석,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 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창의성

창의성은 Guilford(1950)가 미국심리학회장 취임연설에서 사용한 용어로 창의성에 대한

논의와 정의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창의성의 대표적인 학자인 Amabile(1988)는 창의성을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특이한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Amabile(1988, 1996)는 구성요소모델(componential model)을 통해 창의성을 과업동기, 영역관련 기술, 창의성관련 과정 등 3가지 요소로 제안하였다. 구성요소모델에 따르면, 창의적인 결과물 도출하는 개인의 창의적 행동은 전문성, 창의관련 작용, 과업동기로 3가지 구성요소의 일치점에서 나타난다(김신희 외, 2015). 첫째, 전문성(expertise)은 주어진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둘째, 창의관련 작용(creativity-relevant processes)은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인지능력과 성격적 자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과업동기(task motivation)은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하도록 이끄는 동기와 관련된 변인들을 말한다(김현진, 2014).

특히, 창의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인지적 관점, 비인지적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상표 외, 2014). 먼저, 인지적 관점(cognitive style)은 새롭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기존의 인지구조와 통합하여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개인의 내적인 정보처리방법이다. 다음으로 비인지적 관점은 개인적 성향으로, 창의적인 사람의 독특하고 두드러진 생각과 행위를 결정하는 일관성 있는 동기나 행동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분석수준에 따라 개인, 집단 및 조직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개인 창의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시스템 하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창출한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 절차 및 작업과정을 말한다(Woodman et al., 1993).

2. 기업가정신

다양한 학자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해 연구를 시도해 왔으나, 기업가정신 연구가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정통성 및 이론이 부족하여 통일된 분류는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Schildt et al., 2016). 하지만 Ucbasaran et al.(2001)은 기업가정신 이론, 기업가의 유형, 기업가적 프로세스, 조직 유형, 외부 환경, 성과 등 여섯 가지 차원의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정승화, 2008). Schumpeter(1934)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며, 기업가는 혁신가와 동일시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자로서 기업가를 강조하였고,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가는 창조적 파괴과정을 주장하였다(김성환 외, 2015).

기업가정신의 초점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Mises(1966)와 Kirzner(1973)는 기업가

를 수익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가의 기회포착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핵심개념으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리더십, 책임감 등을 들 수 있다(남정민 외, 2014).

최근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기업가정신의 핵심적인 속성은 보유한 자원에 구애받지 받지 않고 기회 추구적이고, 이러한 자원의 제약을 혁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장우, 2008). 선행연구를 볼 때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통찰하여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여 이윤을 극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김성환 외, 2015).

기업가정신 연구의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김종관, 1994). 첫째, 기업가의 특성에 중점을 둔 접근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어떤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둔다. 둘째, 기업가적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으로, 기업가의 기업관리 능력과 리더십, 기업가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등의 기업가적 행동에 연구의 관심을 둔다. 셋째, 과정중심적 접근으로, 기업가정신을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보고 기업가의 혁신지향성과 성장지향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환경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서 환경특성과 조직특성은 외부요인으로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반면,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최종열 외, 2008). 예를 들어, 이성진(2006)은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집단보다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며, 성취동기, 위험감수성, 혁신 추구성 등 대부분의 기업가특성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업의지

창업은 사업초기에 경영자원을 확보하고 결합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가치 있는 조직을 창조하는(creation) 것이다(Vesper, 1990).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Ries, 2012).

창업은 예비 창업자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정용희 · 하규수, 2012). 창업의지란 즉각적인 창업행동이라기보다는 예비 창업자가 향후 창업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용희 외, 2012). 즉, 의지(intention)는 특정 행동의 실행여부를 정확하게 예측 및 설명하는 변수로, 어떤 일을 시도하려는 의지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을 준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Ajzen, 1991). 따라서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Kim & Lee, 2014).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서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윤방섭, 2004). 먼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내재적 통제 위치, 위험추구 성향, 자기 확신, 성취요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성 등이 실증(Bygrave, 1989; Robinson et al., 1991)되었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역할모델, 사회적 지원세력, 창업의 사회적 인식, 창업문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정용희 외(2012)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비창업자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업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또한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감성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4. 감성지능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Goleman에 의해 감성지능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확장되고 대중화되었다. Goleman et al.(2002)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자신의 감성을 인식하는 능력,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감성을 관리하는 능력, 타인의 감성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감성지능이라는 용어는 Salovey & Mayer(1990)에 의해,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의 한 부분으로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Mayer & Salovey(1997, p. 10)는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 및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사고를 촉진할 때, 감정에 접근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감정과 감성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감정과 지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수정 및 재정의 하였다(김신호 외, 2015). 또한 Wong & Law(2002)는 개인이 자신의 감성에 대한 실체와 원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성을 이해 및 공감하며, 상황에 적합한 감성으로 조절하여, 문제해결과 성과 달성을 위해 조절된 감성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성지능의 연구모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이현정 외, 2011). 하나는 감성지능을 인지능과 마찬가지로 감성에 관한 지적능력으로 보는 능력모형(ability model)이다. 능력모형에서는 감성지능을 감성 그 자체와는 별개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관한 복잡·미묘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그러한 정보를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또 다른 하나는 자질모형(trait model)으로 감성지능을 성격의 일종인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정의한다. 즉, 자질모형은 비인지적 능력(non-cognitive abilities)의 폭넓은 조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Bar-on(1997, p. 14)은 감정지능을 환경적 요구와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비인지적 능력, 역량 및 기술의 조합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능력모형과 기질모형을 융합한 혼합모형(Goleman, 1995, 1998, 2001; Bar-On & Parker, 2000)이다. 혼합모형은 잠재적 능력으로서 감성적 역량을 감성과 관련된 정보처리 차원의 지적 능력과 기질적 특성이 융합된 것이다.

감성지능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Salovey & Mayer(1990)를 시작으로 Goleman(1995)과 Wong & Law(2002)에 이어 최근에는 Cote & Miners(200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vies et al.(1998)의 감성지능 정의에 기초한 Law et al.(2004)의 구성요소를 사용하였다. Davies et al.(1998)의 정의는 Mayer & Salovey(1997)의 정의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감성지능의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Law et al., 2004). Davies et al.(1998)은 감성지능을 자기감정 표현 및 평가, 타인 감정의 인식과 평가, 자기감정의 조절, 감정의 활용 등 4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5. 선행연구 고찰

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개인 창의성의 직접효과

Amabile(1997)은 동기이론 관점에서 기업가적 창의성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결합으로 설명하면서, 새롭고 적절한 아이디어의 산출과 실행이 새로운 벤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상표 외, 2014). 이에 Amabile(1997)은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이 관련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Rohani, 2013)과, 그 반대의 경우(Fazaneh et al., 2010)도 존재한다(윤정현 · 이희용,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예: Ward, 2004)은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의 필수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영자들 역시 창의성을 장려하고 있다(Ko & Butler, 2007). 먼저, Miranda et al.(2009)은 기업가정신이 태도를 변화시키는 행동이며, 직무나 사업에 대해 몰입하도록 만드는 행동이고,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창의성은 기업가적 행동에 투입요인이 되고, 기업가정신은 과정적 또는 결과적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Halim & Mat(2010)은 개인 및 조직 수준의 창의성 모두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Zampetakis et al.(2009) 역시 대학생들의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Amabile, 1997; Miranda et al., 2009; Zampetakis et al., 2009; Halim & Mat, 2010)들은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개인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을 실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예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창업에서 창의성의 역할로서 경제적 행위를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다(Curran & Burrows, 1986; Morrison, 199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윤방섭, 2004). 먼저, 개인특성으로는 내재적 통제 위치, 위험추구 성향, 자기확신, 성취요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성 등이 실증(Bygrave, 1989; Robinson et al., 1991)되었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역할 모델, 사회적 지원세력, 창업의 사회적 인식, 창업문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정연수 외(2013)는 창업의지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서 창업과정을 설명해주는 개념인 개인역량, 지식, 심리적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Zampetakis & Moustakis(2006)는 대학생들의 창의성이 창업의지를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최명길(2012)은 창의력의 창업에 대한 인지된 욕구를 통해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하였다. 김병남 외(2015) 역시 대학생들의 일상적 창의성(대안적 해결력, 관계적 개방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Zampetakis & Moustakis, 2006; 최명길, 2012; 김병남 외, 2015)들은 개인 창의성이 높은 예비창업자일수록 진로선택의 대안인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을 예측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예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 간의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선행연구(Amabile, 1997; Minrandra et al., 2009; Halim & Mat, 2010)에서 창의성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또 다른 선행연구(Shapero & Sokol, 1982; Veciana et al., 2005; 윤남수, 2012; 신혜성 외, 2015; 김성환 외, 2015)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Zampetakis et al.(2009)은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의 간접효과를 실증하였으며, 윤정현 외(2015)는 조직 창의성(독창성, 유창성)과 국제화 수준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윤남수(2012)은 자기결정성과 유사한 창업동기요인 중 성취요구,

인적네트워크 및 사회적 인식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신혜성 외(2015)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오상훈(2014)은 기업가정신이 객관적 창업환경·주관적 창업인식·사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의지 사이를 매개한다고 하였다. 특히, 김성환 외(2015)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Zampetakis et al., 2009; 윤정현 외, 2015)들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예측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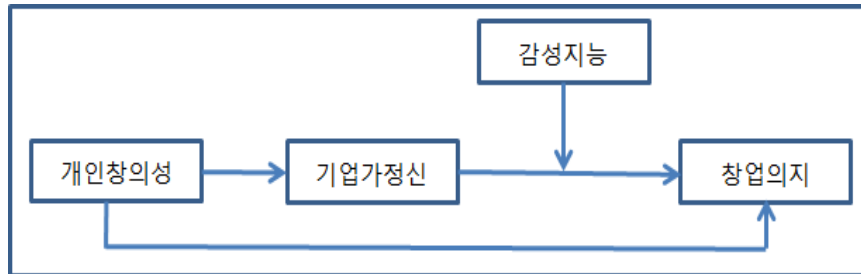
다.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Hornsby et al.(1993)은 기업가정신이 조직특성과 개인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였다(윤종록 외, 2003). 이는 조직특성 및 개인특성이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조직 또는 개인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감성지능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어진 창업환경에 대한 복원력이 높고, 더욱 능동적으로 창업을 준비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중 하나인 창업자의 감성지능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연구에서도 윤종록 외(2003)는 기업가정신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환경특성(동태적 환경)과 개인특성(위험감수)이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했으며, 남정민(2015)은 개인의 기업가정신은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정신과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는 개인특성인 감성지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즉, 기업가정신이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감성지능이 낮은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학생들이 더욱 높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감성지능의 수준에 따라 정(+)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표본의 설정

본 연구목적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개인 창의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어 창업대학원과 다양한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와 호서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부하여, 405부(회수율 89.8%)되었으나,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누락 자료를 포함한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거하고, 40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예비창업자 403명의 통계적 기초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26명(56.2%)이며, 학년은 1학년 100명(24.9%), 2학년 83명(20.6%), 3학년 151명(37.6%), 4학년 68명(16.9%)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소속대학은 인문 및 사회대 297명(74.1%), 자연 및 공대 등 104명(25.9%)이었다. 특히,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81명, 20.1%)보다는 수강하지 않은 학생(321명, 79.9%)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개인 창의성은 Kirton와 Ettlíe & O'keefe의 연구를 바탕으로 척도를 구성한 최종인(1995)의 측정도구 9개 문항을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은 '문제를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도', '기존의 방식이나 도구를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정도' 등이다. 감성지능은 Wong & Law(2002)가 개발한 WLEIS의 4개 차

원(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각 4개 문항으로 총 16개 설문문항을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나 자신이 느끼는 것을 잘 이해하는 정도’,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잘 이해하는 정도’ 등이다. 기업가정신은 Miller(1983)와 Zahra(1991) 등이 제시한 3가지 차원(위험추구, 혁신성, 진취성)을 사용한 윤백중(2012)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위험추구, 혁신성, 진취성 등을 포함한 9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정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성 정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김성환 외(2015)의 연구에서 측정된 5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고 싶은 정도’, ‘장래에 창업을 할 분명한 계획을 지닌 정도’ 등이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년, 소속 단과대학, 창업교육 수강유무 등을 설정하였다. 학년변수를 제외한 성별(남성 1), 소속 단과대학(인문·사회대 1), 창업교육 수강유무(무 1)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IV. 실증분석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활용척도들 중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과 배리맥스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으로 정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 주는 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인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변수의 신뢰성은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내적 일치성은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표 1〉 신뢰성 분석결과

변 수		항 목 수	Cronbach's α 계수
개인 창의성		6	.813
기업가정신		7	.878
창업의지		5	.920
감성지능	자기감정 이해	4	.763
	타인감정 이해	4	.809
	감성조절	4	.728
	감성활용	4	.836

먼저 신뢰도 분석결과<표 1>,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알파계수가 각각 .813,

.878, .920이었으며, 감성지능의 하위변인은 자기감정이해(.763), 타인감정이해(.809), 감성조절(.729), 감성활용(.836)이었다. 즉,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신뢰도가 충족하였다.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요인분석 결과<표 2>,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917으로 1에 가깝고, 구형성 검증 통계값이 4193.479(df=153, p=.000)로서 유의수준이 유의하므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였다. 또한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고유값이 각각 3.415, 3.944, 3.899으로 1 이상이며, 각 요인은 전체 분산의 각각 18.975, 21.911%, 21.660%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감성지능의 요인분석 결과<표 3>,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869으로 1에 가깝고, 구형성 검증 통계값이 2282.860(df=105, p=.000)로서 유의수준이 유의하므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였다. 또한 자기감정이해, 타인감정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고유값이 각각 2.466, 2.542, 1.844, 2.990으로 1 이상이며, 각 요인은 전체 분산의 각각 16.443, 16.946%, 12.295%, 19.933%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표 2〉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요인분석

요 인		요인적재치	창의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변 수					
창의성	창의성1	.641	.745		
	창의성2	.557	.688		
	창의성3	.610	.724		
	창의성4	.463	.488		
	창의성5	.425	.637		
	창의성7	.551	.699		
기업가정신	기업가1	.563		.673	
	기업가2	.591		.658	
	기업가5	.545		.656	
	기업가6	.595		.513	
	기업가7	.691		.788	
	기업가8	.637		.757	
	기업가9	.589		.733	
창업의지	의지1	.809			.851
	의지2	.800			.843
	의지3	.811			.853
	의지4	.653			.773
	의지5	.727			.805
아이겐 값			3.415	3.944	3.899
분 산(%)			18.975	21.911	21.660
누적분산(%)			18.975	40.886	62.546

주: 계수 값 0.4이하는 생략

〈표 3〉 감성지능 요인분석

구 분	요인적재치	요 인			
		1	2	3	4
자기감정이해	감성1	.647	.746		
	감성2	.692	.781		
	감성3	.510	.646		
	감성4	.583	.717		
타인감정이해	감성5	.545		.588	
	감성6	.721		.824	
	감성7	.765		.863	
	감성8	.616		.752	
감성조절	감성9	.743		.824	
	감성10	.761		.852	
	감성11	.600		.531	
감성활용	감성13	.651			.773
	감성14	.723			.822
	감성15	.621			.751
	감성16	.622			.779
아이겐 값		2.466	2.542	1.844	2.990
분 산(%)		16.443	16.946	12.295	19.933
누적분산(%)		16.443	33.389	45.684	65.616

주: 계수 값 0.4이하는 생략

2. 단일 응답자 편차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동일시점에 동일한 측정 대상으로부터 자기보고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단일 응답자 편차(single respondent bias)의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식에 의해 야기되는 이러한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Podsakoff and Organ(1986)이 제시한 통계적 사후 해결방법인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총 9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이 전체 변량의 11.75% 정도만 설명되었을 뿐 지배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Bartlett 검증(유의수준<.000)을 통해서도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으며, KMO측정치(0.914)도 최저기준치(0.5)를 상회하여 전체 변수에 대한 표본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단일 응답자 편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 창의성은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감성지능은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교육 수강은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고학년일수록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예비창업자의 성별 특성 중 남성은 감성지능,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속 단과대학이 인문·사회계열의 예비창업자들은 창의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남자	1.4403	.5020	1.00							
학년	2.4562	1.0427	.027	1.00						
인문사회	.7406	.4388	.180*	.159*	1.00					
수강무	1.2015	.4016	-.058	.187*	-.170*	1.00				
감성지능	3.5955	.4878	-.194*	.019	.033	-.002	1.00			
창업의지	2.7846	1.0194	-.168*	.145*	-.010	.233*	.227*	1.00		
창의성	2.8698	.6237	-.210*	.092	-.113**	.203*	.464*	.445*	1.00	
기업가정신	3.2818	.6827	-.104**	.121**	-.044	.149*	.499*	.546*	.638*	1.00

주: **는 0.05 수준(양쪽), *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4. 가설의 검증

1) 창의성의 직접효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창의성의 직접효과 검증 결과<표 6의 모형1, 모형2>, 잔차에 대한 Durbin-Watson값이 각각 1.942, 1.899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여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인자 VIF값이 각각 1.076~1.113, 1.078~1.114사이로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10보다 큰 설명변수가 없어 다중공정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개인 창의성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6〉 기업가정신의 매개회귀분석

독립변수 \ 종속변수	모형1 (기업가정신)	모형2 (창업의지)	모형3 (창업의지)	모형4 (창업의지)
(상수)	1.135	.493	-.005	-.227
남성	.023	-.187**	-.234***	-.203**
학년	.046*	.079*	.047	.047
인문·사회대	.021	.147	.120	.134
창업수강(무)	.018	.357***	.381***	.348***
창의성	.684***	.637***		.184**
기업가정신			.753***	.653***
R2	.398***	.228***	.330***	.336***

주: * $p < .1$, ** $p < .05$, *** $p < .01$, 비표준화계수임.

2)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가 개발한 검증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조건 1로 독립변수(창의성)가 종속변수(창업의지)에 유의해야 하며, 조건 2로 독립변수(창의성)가 매개변수(기업가정신)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조건 3)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경우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완전매개), 최소한 제2단계의 회귀계수보다 감소하여야(부분매개) 매개변수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검증결과〈표 6의 모형1~모형4〉, 첫째 조건은 모형 2에서 개인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조건 2에서는 개인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하였다. 또한 조건 3에서 독립변수(창의성)와 매개변수(기업가정신)가 동시에 투입했을 경우,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제2단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즉, 창의성과 창업의지와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은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Sobel test로 계수를 검증한 결과〈표 7〉, .01 유의도 하에서 z값이 9.304으로 ± 1.96 보다 큰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업가정신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0.515(0.684×0.753)이며, 직접효과(0.637)와 간접효과(0.515)를 더한 총 효과는 1.152이다.

〈표 7〉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구분	A	B	SEa	SEb	Z	p
창의성→기업가정신→창업의지	.684	.753	.045	.064	9.304	*

* $p < .01$

A =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준화계수, SEa = A의 표준오차

B =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표준화계수, SEb = B의 표준오차

3) 감성지능 조절효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 2단계에서 독립변수,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 그리고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4단계에서 상호작용변수의 유의성을 통해 각각 주효과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특히 상호작용변수의 다중공정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 값을 곱하였으며(Aiken & West, 1991), 분산팽창지수값 중 최대값이 1.95로서 다중공정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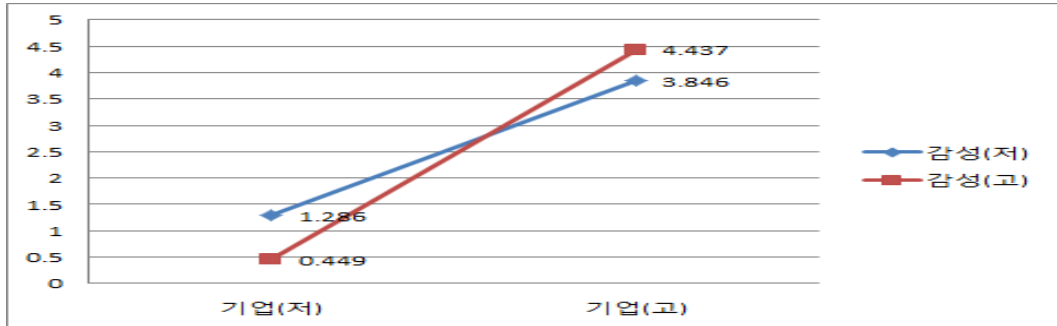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표 8>,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는 모형 3과 모형4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가정신과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이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으며, R²의 변화량 역시 0.06%($p < .1$)의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표 8〉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창업의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328	-.005	.413	.375
남성	-.342***	-.235***	-.258***	-.245***
학년	.106**	.047	.044	.045
인문·사회대	.089	.118	.132	.125
창업수강무	.525***	.382***	.370***	.375***
기업가정신(A)		.753***	.808***	.801***
감성지능(B)			-.154	-.151
A*B				.192*
R ²	.092	.330	.334	.339
△ R ²	-	.238	.004	.006*
F	9.973***	38.577***	32.636***	28.605***

주: * $p < .1$, ** $p < .05$, *** $p < .01$, 비표준화계수

조절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Aiken & West(1991)는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3]에서 보듯이 예비창업자들의 높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이 높은 집단($B=.997$, $p<.01$)이 낮은 집단($B=.640$, $p<.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V. 결 론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개인 창의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개인 창의성은 또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영향은 감성지능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보면 첫째,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개인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함으로써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선행요인으로 개인 창의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출과 구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개발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적으로도 단순히 기업가정신의 기술적 측면이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창의성 등과 같은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고등학교부터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창업교육 실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많은 선행연구(예: Amabile, 1997; Minranda et al., 2009; Zampetakis et al., 2009; Halim & Mat, 2010, Zampetakis & Moustakis, 2006)들이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또는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지만, 관련성이 적다고 주장(예: Fazaneh et al., 2010)도 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관계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 이는 Zampetakis et al.(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예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기업가정신을 통한 간접효과(0.515) 역시 직접효과(0.637)만큼이나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으로는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였으며, 실무적으로도 예비창업자의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Hornsby et al.(1993)은 기업가정신이 조직특성이나 개인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변인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결과변인(예: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이 지니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즉,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높아도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감성지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나 실제 창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및 기업가정신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선행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도 감성지능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어진 창업환경에 대한 복원력이 높고, 더욱 능동적으로 창업을 준비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특히, 감성지능이 뛰어난 리더는 부정적이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감성을 통제할 수 있어서 창업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와 비윤리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업교육 시 창업자들의 윤리적 문제와 연계한 감성지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을 표본으로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자들의 창의성과 감성지능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연구의 일반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창의성 및 감성지능의 측정도구를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에 적용함으로써 일부 측정항목이 누락되기도 하였다. 또한 창의성은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창의성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수준과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에 부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으로 창업자의 도덕성 문제를 다루었지만, 향후에는 (예비)창업자들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에 치중하여 명확한 인과관계의 추론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병남·박경선(2015),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이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및 창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pp. 57-84.
- 김상표·변충규·하환호(2014), 창의성이 높으면 기업가정신도 높은가? 인지적·비인지적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제14권 제3호, pp. 67-78.
- 김성환·복경수·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5호, pp. 15-26.
- 김신호·정지연·정재진·박재춘(2015), ICT기업에서 변혁적 리더십, 조직신뢰, 리더의 감성지능 및 창의성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 400-412.
- 김영환(2014),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24권 3호, pp. 1~11.
- 김용성(2014),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외 KDI Focus, 통권 제35호.
- 김종관(1994),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연구접근방법, 동남경영, 9, pp. 27-52.
- 김현진(2014), 창의성과 집단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민(2015),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성과간의 연구: 해커톤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 리더십 효과성 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1호, pp. 45-53.
- 남정민·김성환·방누수(2014) 기업가정신과 창업, 북넷.
- 대한상공회의소(2015),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
- 박재춘·정지연·정재진(2015), ICT기업에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내재적 동기부여, TMX, 창의성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 607-619.
- 신혜성·안윤영(2015), 예비창업자들이 지각한 외식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2호, pp. 433-452.
- 오상훈(2014), 청장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pp. 1537-1557.
- 윤방섭(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pp. 89-110.
- 윤백중(201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정현·이희용(2015), 수출중소기업 국제화에 있어 조직의 창의성과 기업정신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pp. 285-305.
- 윤종록·위홍복·최광신(2003), 조직기업가정신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6권 제3호, pp. 869-888.
- 이성진(2006), 「기업가특성이 벤처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집,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11권 5호, pp. 281~290.
- 이장우(2008), 기업가정신과 창업, 법문사.

- 이현정 · 박통희(2011), 감성지능과 조직시민행동: 감성역량의 관점에서 한국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제2호, pp. 67-110.
- 정승화(2008), 벤처창업론, 박영사.
- 정연수 · 조성의(2013), 대학생 창업의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8권 제1호.
- 정용희 · 하규수(2012), 『예비창업자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예비창업자 경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제15권 제4호.
- 최명길(2012),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열 · 정혜주(2008), 경영학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5권 제3호, pp. 213-230.
- 최종인(1995), 집단창의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iken, L. S., & S. G. West(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 York: Sage.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pp. 179-211.
- Amabile, T. M.(1997). Entrepreneurial creativity through motivational synerg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1(1), 18-26.
- Amabile, T. M.(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In B. M. Staw & L. L. Cummings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Greenwich, CT: JAI Press, Vol.10, pp.123-167.
- Amabile, T. M.(1996), *Creativity in Context*, Boulder, CO: Westview Press.
- Bar-On, & Parker, J. D. A.(2000),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Bar-On(1997), Bar-On Emotional Quotient Inventory(EQ-i) Technical Manual.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ygrave, W. D.(1989), "The entrepreneurship paradigm (I): a philosophical look at its research methodolog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4, pp. 7-26.
- Cote, S., & Miners, C. T. H.(2006),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ve Intelligence, and Job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1: 1-28.
- Davies, M., Stankov, L., & Roberts, R. D.(1998), *Emotional Intelligence: In search of an elusive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989-1015.
- Farzaneh, G., Hassan, A., Gholamereza, P., Mirsalaldin, E., Parviz, A., & Alireza H.(2010),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grade point average, achievement motivation, age, and entrepreneur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Australian Journal of Basic and Applied Science, 4(10), 5372-5378.
- Gartner, W. B.(1987),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 of Business Venturing*, 5, 15-28.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Goleman, D.(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leman, D.(2001), An EI-based theory of performance in Cherniss, C. and Goleman (eds.) *The emotionally intelligence workplace*. How to select for measure and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in individuals, groups, and organization. Jossey-Bass, San Francisco, CA. 27-44.
- Goleman, D., Boyatzis, R., & McKee, A.(2002), *Primal leadership*.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Guilford, J. P.(1970), "Creativity: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Vol.4, pp.149-168.
- Halim, H. A. S. A., & Mat, A. C.(2010), Craftermakers: A significant study on entrepreneurial creativity and competitive advantage, *Canadian Social Science*, 6(3), 59-66.
-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S. H., & Lee, J. H.(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Public sect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91-99.
-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Ko, S., & Butler, J. E.(2007), Creativity: A key link to entrepreneurial behavior, *Business Horizons*, 50, 365-372.
- Law, K. S., Wong, C., & Song, L. J. (2004) Construct and criterion valid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potential utility for management stu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3): 483 - 496.
- Lee, L., Wong, P. K., Foo, M. D., & Leung, A.(2011),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1), 124-136.
- Low, M. B., & MacMillan, I. C.(1988),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14(2), pp. 139-161.
- Mayer, J. D., & Salovey, P.(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Sluyter, D.(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Basic Books, New York.
- Miranda, P. C. D., Aranda, J. A. S., & Zardo, J.(2009), Creativity: People, environment and culture, the key elements in its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Science and Public Policy*, 36(7), 523-535.
- Mises, L. V.(1966), *Human Actions: A Treatise on Economics*, Fox and Wilkes.
- Podsakoff, P., & D. Organ(1986), "Self Reporter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pp. 531-544.
- Ries, E.(2012),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es*, Crown Publishing.
- Robinson, P. B., Stimpson, D. V., Huefner, J. C., & Hunt, H. K. (1991),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5, pp. 13-31.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 Cogn. Personal.* Vol.9, pp.185 - 211.
- Shapero, A., & Sokol, L. (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Kent, D. Sexton and K. H. Vesper(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90.
- Ucbasaran, D., Westhead, P., & Wright, M.(2001), "The focus of entrepreneurial research: Contextual and process issu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5(4), pp. 57-80.
- Veciana, J. M., Alponete, M., & Urband, D. (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Wong, C. S., & Law, K. S.(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 An explorator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 Woodman, R. W., Sawyer, J. E., & Griffin, R. W.(1993), "Toward a theory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8, pp.293-321.
- Zampetakis, L. A., & Moustakis, V. S.(2006), Linking creativity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structural approach,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 2 No. 3, pp. 413-428.
- Zampetakis, L. A., Kafetsios, K., Bouranta, N., Dewett, T., & Moustakis, V. S.(2009),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5(6), 595-618.

투고일자 : 2015. 11. 29

수정일자 : 2015. 12. 29

게재일자 : 2015. 12. 31

<국문초록>

예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 감성지능,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관계

이상직 · 박재춘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개인 창의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개인 창의성은 또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창업의지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효과는 감성지능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보면 첫째,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개인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함으로써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선행요인으로 개인 창의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개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감성지능이 지니는 효과를 실증하였다. 즉,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높아도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감성지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자들의 창의성과 감성지능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연구의 일반화를 높이고, 창의성의 수준과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에 부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횡단적인 연구에 치중하여 명확한 인과관계의 추론에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창의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감성지능, 조절효과